

‘반갑다 추워야’ 가을 정기세일 실적 ‘쑥’

롯데백 광주점, 겨울의류 호조 전년비 매출 10.5% ↑
광주신세계, 명품·스포츠 등 신장세 전년대비 9.9% ↑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가을 정기세일 기간 매출이 두 자릿 수 판매 신장세를 보이며, 불황 속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위로 겨울의류 매출이 급증한 데다 가을 정기세일 기간 이어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해외 명품 대전 등의 행사가 매출 신장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18일 지역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했던 가을 정기 세일 실적

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에 비해 10.5% 신장했다.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추운 날씨에 겨울 의류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두 자릿 숫자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걸로 보여진다.
세부 상품군 별로는 모피 62%, 여성 디자이너 37.5%, 가전 35.2%, 스포츠 23.2%, 아웃도어 21.3% 순으로 신장을 이끌었다.
특히 롱패딩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패션업계에서는 모피, 무스탕, 베스트 등

의 겨울 상품들을 전년에 비해 더 많이 기획하고 준비한데다가, 겨울 상품 선입고 가격 할인 마케팅도 브랜드 별로 동시에 진행된 것이 매출 신장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세일 중에 진행했던 대형 행사도 플러스 신장율에 한몫 했다. 초반에 진행했던 아웃도어 대형 행사와 해외 명품 대전, 웨딩페어까지 다양하고 실속 있는 상품과 행사를 기획한 것이 세일 판매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상주 롯데백화점 영업기획팀장은 “이번 세일은 추석 연휴 이후 바로 진행된 데에 따른 ‘명절 이후 특수 효과’와 갑갑기 찾아온 ‘추위’에 높은 신장을 기록했다”며 “올 겨울 이례적인 추위가 계속

속 될 걸로 예상되는 등 전년 ‘평창 롱패딩’을 상징으로 하는 겨울의류 특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9.9% 신장했다. 부문별로는 명품 33.7%, 스포츠 17.8%, 골프 11.6%, 여성의류 11.5% 등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했던 ‘코리아세일 페스타-특별마켓’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매출이 늘었다”며 “명품은 지난해에 비해 5개 브랜드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



이마트, 전기 이륜차 ‘재피’ 본격 판매

1회 충전 최대 100km 주행 가능

이마트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14개의 스마트 모빌리티 편집숍인 ‘M라운지’와 2개의 자체 팝업매장 등 총 16곳에서 ‘재피’의 친환경 전기 이륜차인 ‘재피(ZAPPY)’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재피’의 정가는 395만원이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통 국가보조금인 230만원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165만원이다.
내연기관 스쿠터의 외형을 띄고 있는 ‘재피’는 전기 구동 이동수단 특성상 주행시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리 없이 조용한 것이 특징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로 일반 도로에서도 여유롭게 달릴 수 있다.

전기 이륜차인 만큼 경제성도 높다. 하루 50km 주행시 전기료가 260원에 불과해 한 달 간 7천800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 충전은 220v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며,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해 배터리를 가정으로 가져가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또한 안정성을 고려해 사이드 스탠드를 걸어서 올려야만 전기 공급이 이뤄지는 ‘스탠드 록’ 기능과 초기 발진 시 슬로우 스타팅 기능을 넣었다.
허준석 이마트 레저스포츠 바이어는 “극심한 미세먼지로 매년 불편을 겪는 가운데 전기 이동수단이 효과적 없이 조용한 것이 특징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로 일반 도로에서도 여유롭게 달릴 수 있다.”

/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

롯데아울렛 남악점 샤�롯데 봉사단 보호시설 등 소외계층 생필품 지원

롯데아울렛 남악점 샤�롯데 봉사단은 최근 여성보호시설인 목포대화모자원에 방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화장지, 물티슈) 증정 및 원내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미혼모 및 가정폭력 여성보호시설로 원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을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김상규 롯데아울렛 남악점 부점장은 “앞으로도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식품관 슈퍼매장에서 한 직원이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 봉투 대신 친환경 종이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이마트, 전국 점포서 ‘와인장터’

국내 최대 규모 와인 할인 행사인 ‘이마트 와인장터’가 10주년을 맞아 최초로 전 점에서 개최된다.
이마트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이마트 143개 점포에서 와인 장터를 열고 총 960개 품목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록적으로 성장 중인 와인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50개 점포에서 열렸던 행사를 전 점포로 확대하고 행사 기간도 기존 나흘에서 일주일로 늘렸다.
전 점에서 선보이는 공통 행사 품목은 31개다.
대표 상품은 ‘앙드레 끌루에 브뤼’ 3만5천원, ‘코노수르 비씨클레타 샤도네이 1500ml’ 2만원, ‘콘 크릭 카베르네 소비뇽 2015’ 3만8천원 등이다.

/연합뉴스

유통업계 친환경 ‘에코 바람’ 선도한다

롯데백 광주점,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전면 중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슈퍼매장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을 전면 중지하는 친환경 행보를 전격 시행한다.
18일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광주점 지하 식품관 슈퍼매장에서 그간 제공하던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을 중지하고 친환경 종이봉투(100원)와 종량제 봉투(20ℓ 760원)로 대체 제공한다.
이는 환경부에서 올 연말 입법 예고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유통업계의 대

표 기업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솔선 수범하고 법령안 시행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광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중지를 시작으로 비닐 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는 ‘에코슈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크라프트지 재질로 만들어진 친환경 종이봉투를 유상 판매해 비닐 봉투 사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해 광주시 각 행정구별 종량제

봉투(20ℓ)도 판매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규제 예외 사항인 생선, 정육, 채소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롤 봉투도 예외 사항이지만 환경부 환경표지인증기준(EL 724)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재질 비닐봉투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제작 후 180일이 지나면 90% 이상 분해가 되는 친환경 비닐이다.
앞서 광주점은 정육 등 신선식품의 포장물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연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일종인 PLA 재질로 전면 교체한 바 있다.

/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

‘워라벨’ 문화 확산 여가용 제품 인기

광주 이마트, 게임용품 판매 전년비 87% 올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안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된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이마트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게임용품은 87.6%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와 피트니스용품 또한 각각 8.6%, 5.7% 매출이 상승했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으로 변화하며, 개인적 취미생활과 운동 등 여가활동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나만의 공간과 재충전의 쉼터로 집안을 선택하는 트렌드가 확산된 것도 여가제품 매출 신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등에 전용 게임기를 연결해 작동하는 게임인 닌텐도, PS(플레이션 스테이션) 등의 콘솔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키보드족에게는 인기캐릭터 피규어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취미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놀이 교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보드게임도 호응을 얻고 있다.
장원종 이마트 상무점 점장은 “52시간제 근무 정착으로 집안에서 여가를 보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실내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게임, 완구, 피트니스용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상품을 확대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55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 조정가능)
- 문의. 010-3605-5000

